1998. 9. 15 창간

Vol. 206

춘천성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운동 매거진



특집 신년 춘천 지도자 좌담회
통일 쥬빌리 4주년 기념 12시간 기도회
다음세대 온누리교회 영 · 유아부
기획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강이야기 겨울철 가려움증

2016
01

춘천 성시 창간 1998. 9. 15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차덕수,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디자인
로딘어스 010.5115.8731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 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T 033.256.1260~1 F 033.257.1260 E holycc1972@hanmail.net

※ 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문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로 연락주세요.

… 성시매거진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커버 스토리

예수안에서 본 예술



"주님! 제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최영이 | 24 x 33.5cm | oil on canvas

넓고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남쪽 끝에 있는 내 고향을 생각하며 주님을 불러봅니다.
(작가노트)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Editor's Note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었다 해도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은 사실 작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색다름' 을 추구하기 위해서일까? 어떤 분들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끽하려고도 하고, 또는 동해로 달려가 바다 끝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가슴에 안아보기도 한다. 그러나 장소를 바꾸어 본들 해아래 새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새 것' 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낮과 밤, 계절, 밀물과 썰물 등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주에 질서와 법칙을 세우셨다. 하루도 어김없이 해가 뜨고 지는 질서에 의존되어 있다. 만일 이러한 일정한 법칙이 없다면, 아무 것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우주만물의 자연법칙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네 거리의 신호등이 법칙과 질서를 어기고 아무렇게나 작동된다고 생각해보라. 그로 인한 혼란으로 교통은 마비되고 말 것이다. 모든 법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질서와 법칙을 소홀히 여기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해 본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개혁도 시급하지만 교회의 개혁 역시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16세기 스위스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교회와 사회를 함께 개혁하고자 했다. 교회와 시 당국이 파트너가 돼서 같이 지역을 변혁해서 보건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올해 기독교연합회(회장 차덕수 목사)에서는 가칭 〈시목회〉의 구성을 앞두고 있다. 더 나아가 〈동목회〉 〈마을목회〉로 확대 되어, 교회가 지역주민들과 이웃으로 그 마을을 섬기면, 마을의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관공서나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인적 자원과 물적 기반을 공유하면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춘천 안에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섬기는 다양한 연합단체들이 있다. 모든 단체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협력해야 할 부분들을 협력하고 양보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의적으로 양보함으로써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위를 따지고, 간섭하고 지배하려는 오만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한다.

편집장 최영조

Contents

2016. 1. Vol 206


009


011


034

1 커버스토리

3 에디터 레터

5 쉼 한 편
길이와 넓이

6 1월 캘린더

8 인사말
늦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10 특집1
신년 춘천지도자 좌담회

15 예향/만평

16 통일
쥬빌리 4주년 12시간 기도회

19 종교개혁 - 3

22 다음세대
온누리교회 영 · 유아

24 시사
국가인권 위원회법 개정

28 기획
자랑스런 대한민국

31 칼럼
장로연합회 회장 인사만

32 건강이야기
겨울철 가려움증

34 예수의 미소
겨울철 길거리 간식

36 영화이야기
워룸

38 알려드려요

40 음악이야기
핀란디아

41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소식

42 12월을 돌아보며

48 후원자 명단

길이와 넓이



정갑숙 (아동문학가)

탕!
못 하나가
쇠망치를 맞았다
그 순간
못은 깊이를 얻었다.

조금 후
넓은 액자 하나가
못을 붙잡고 벽에 섰다.
액자의 넓이를 붙잡아주는
못의 깊이

보이지 않는 깊이가
보이는 넓이를 이겼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1
2016

◆ 성시화 기도제목

· 남북한 453개 온 도시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제사장 나라, 온 민족이 세계선교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시33:12)

·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가 민족의 가슴마다 가정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온 땅에 임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복음전도운동이 되게 하소서. (마28:18~20, 행1:8)

· 자비하신 하나님, 성시화운동이 이 땅에 만연한 불신앙, 자살, 이혼, 낙태, 저출산, 태업, 파업, 살인, 마약, 폭력, 동성애, 이단사이비등 범죄와 부패를 추방하는 경건운동이 되게 하소서. (딤후3:1~5)

SUNDAY	MONDAY	TUESDAY
3	4 · IVF 오픈강좌 오전10시 IVF회관 · IVF 아볼로성경학교 ~9일 IVF회관 · 예스컴 고3영성훈련 ~한달간	5
10	11 · IVF 섬김이훈련 ~16 IVF회관 · 어린이전도협회 TCE교사대학 1단계 ~22 저녁7시 월화목금, 지회사무실 ·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저녁 7시 15분 주향교회	12 · 성시본부 성시지도자 기관 단체장모임 오전7시
17 · 예수전도단 YWAM 동아시아 지역 개더링모임 ~22일 태국 치앙마이	18	19 · IVF 청소년수련회 '숨' ~21 횡성서초수련원
24 · 기드온 순방예배 11시 양구남면교회	25 ·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 하천 무대	26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1-2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신정	**2**
6 · **성시본부** 편집회의 오후2시 주향교회	**7** · **기독교연합회** 신년교례회 오전10시30분 중앙감리교회	**8**	**9** · **청소년대상 겨울특강** · 근현대사 특강 오전10시 베드로선교센터
13	**14**	**15**	**16** · **청소년대상 겨울특강** · 근현대사 특강 오전10시 베드로선교센터
20	**21**	**22**	**23** · **청소년대상 겨울특강** · 근현대사 특강 오전10시 베드로선교센터
27	**28** · **홀리클럽** 82회 정기기도회 오후 6시 제일장로교회	**29** · **에스컴**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 일주일	**30** · **청소년대상 겨울특강** · 근현대사 특강 오전10시 베드로선교센터 · IVF 제30차 정기총회 IVF회관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늦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장 김창환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지난해 민다나오 섬에서 동남아 지역 현지선교사, 간사학교가 2주간 열렸다. 다바오에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마닐라행 항공의 늦은 출발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한국행 항공을 탑승할 수 없을 만큼 지체되었다. 마닐라에 도착하니 항공사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천행 항공이 우리를 기다리느라 이륙하지 않고 있으니 좇아오라는 것이었다. 나와 친구목사님은 1,000미터 선수처럼 달리며 세 개의 관문도 FREE PASS 하다시피 넘어가 심장박동수를 배가시키며 겨우 탑승할 수 있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하늘을 날 때, 아차! 짐! 다바오에서 실은 짐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이 났다. 승무원에게 물어보니 시간이 없어 못 찾았다 하면서 다음 비행기로 날라 준다고 하였다. 인천에 도착하여 문의하니 짐이 도착하면 택배로 배송한다고 하는데 3-4일 걸릴 것이라 하였다. 그 가방엔 다른 물건도 물건이지만 성경책과 함께 주일에 설교 할 원고가 들어 있었다. 토요일 저녁에 춘천에 도착하니 설교원고에 마음이 꽂혀서 심기가 좋지 않았다. 이미 성도들에 게시된 본문을 펼쳐놓고 설교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방에 넣고 온 설교내용이 생각나지 않았다.

밤을 새우리는 신호구나 생각하며 식사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기도하고 본문보고 기도하고 본문보고 밤새우다시피 하면서 새벽기도 시간 될 때쯤에야 설교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그제야 가방 속에 두고 온 설교 내용이 번쩍거리듯 떠올랐다. 필리핀에서 준비한 설교와 집에 와서 밤새워 준비한 설교 내용에 차이가 많이 났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밤새워 엎드렸다 앉았다 끙끙거리며 준비한 설교를 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민다나오에 가서 선교사님들 섬기고 오시더니 설교가 더 은혜 있다고 말했다. 다바오 비행기가 일찍 마닐라에 도착하고 가방을 찾아 가지고 왔다면 나는 이미 준비된 설교로 인하여 마음 편하게 쉬며 잤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의 광맥을 파지 않고 누웠을 것이다. 늦은 것도 이유가 있고, 잃은 것도 섭리가 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섬김이 2년째가 되었다. 이사님들과 사무총장님과, 간사님과 편집위원들이 수고해 주셔서 내가 성시화의 얼굴이 되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다. 무언가 한 것 같은데 흔적은 없고 아직도 주위에는 냉담함이 있다. 춘천에서 목회한다는 명분으로 직분은 맡았지만 아직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 높은 고개를 넘어가며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는 엔진용량 부족한 자동차를 몰고 가는 느낌이다.

연합 운동이 이전에는 회장자리 대표자리 임원자리 감투싸움까지 해가며 서로 하겠다고 한때도 있었는데 현실은 서로 거부하고 있다. 갑자기 예수님을 닮아 겸손해진 것일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이때를 위하여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연합하는 일에 성시화운동하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다. 지금은 완행열차보다 더 느리게 성시화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성시화 이력은 화려하나 실상은 박제화 된 호랑이 같다. 그러나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있다. 이사회 모임에 함께 하여 좋은 의견을 나누고, 교회들이 이사회비를 내고, 성시 발전기금도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기관장 모임도 시작하여 뜻을 같이한다.

홀리클럽의 청지기들의 기도와 헌신의 열심은 성시화운동에 큰 활력소이다. 천천히 되어지고 늦게 가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 기독교연합회, 목회자연합회, 장로회연합회, 선교단체, 경제계, 공직사회, 강원CBS, 강원일보, 도민일보등 언론계, 교육계, 금융계, 의료계, 문화출판계, 경찰, 군인, 문화예술계, 정치계, 스포츠계등 다양한 단체에서 수고하는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춘천시민의 심장을 덮고 거룩함과 도덕성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행복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흥왕하게 될 것을 비전지울로 본다. 춘천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은 성시화에 참여하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년 춘천기독교 지도자 좌담회



지난 12월 18일(금) 저녁, 춘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한 해를 평가하고 새해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성시매거진 편집장 최영조 목사(사회)를 비롯하여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이하 성시본부) 이사장 김창환 목사, 기독교연합회장 차덕수 목사, 기독교연합회 총무 오의석 목사, 성시본부 부본부장 조영춘 목사, 성시본부 사무총장 이병철 목사, 강원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영명 장로, 목회자연합회 총무 정덕현 목사, 신재원 목사(CAL-NET 자문)등이 참여하였다. 지면을 통해 좌담회를 소개한다.

1

최영조 목사(성시매거진 편집장, 사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두가 귀하게 사역해 주셨는데 허심탄회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덕수 목사(기독교연합회, 회장)



그동안 기독교연합회를 옆에서 도우면서, 또 올해는 기독교연합회장으로 섬기면서 춘천의 온 교회가 연합하여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족복음화의 못자리판인 군 선교 문제도 힘껏 도와야하고, 청소년들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필요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시목회도 조직이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교회와 기관이 협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기독교가 이전에 비해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위상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보니 타종교에 비해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별 교회와 단체의 힘은 커졌는데, 에너지가 분산되어 모이는 힘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해 동안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한 마음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덕현 목사(목회자연합회 총무)



한 해를 돌아보며 평가해 보면, 교역자연합회에서 목회자연합회로 명칭을 바꾸는 등 연합회 회장께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솔선하여 헌신하시고, 지역교회들의 많은 협력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원로목사, 은퇴목사 가정을 초청하여 식사하고 금일봉도 전달하였으며, 목회자들의 일치를 돕는 일에 사역의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2016년에는 기존의 사역과 아울러 새로운 회장단을 중심으로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전라도 증도)을 1박2일로 방문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으며, 무명의 목회자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며 섬기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명 장로(강원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저는 성시화운동본부 설립 초기부터 직장선교연합회를 통해 춘천 성시화운동을 도와왔습니다. 1996년 10월부터 매년 첫째 주간을 "성시주간"으로 선포하고, 총체적으로 대회를 치룬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후 매년 성시주간이 유야무야되며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오지 못하다가 2015년 10월에 비로소 명실상부하게 성시화주간이 부활된 것이 뜻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성시대회가 열매 맺은 것을 보면서 이것을 기획하고 집행한 이사장과 이사들, 집행부에 존경과 사랑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성시대회전 준비모임이 조금 서둘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번에 협력 수고한 홀리클럽 등 각 기독단체들이 충분히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김창환 목사(성시본부 이사장)



한 해를 돌아보면 앞에서 일하는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등 실무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은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운동이 젊어졌다는 평가를 외부에서 받습니다. 특히 기독교연합회의 회장, 총무를 위시하여 임원들과 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의 고민은 지교회의 독특성과 사역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부적으로 춘천의 교회들이 어떻게 성시화라는 이름으로 더 잘 연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기독교연합운동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먼저 연합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에도 400개 가까운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왜 연합이 되지 않을까요? 신선한 충격을 주어서라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성시화운동의 모델도시 춘천이 되는 일에 모두 일어나 거룩한 나팔을 불어야합니다. 춘천을 제2의 스위스 제네바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꼭 제네바를 추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역은 추억이 아니라 발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퇴까지 10년 남은 미래를 준비하며 거룩한 도시로의 살아있는 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최영조 목사(성시매거진 편집장. 사회)



미국 교회를 탐방해보니 지역교회가 전도는 각자하면서도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든지, 시민을 향한 홍보를 하고 연합을 할 때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초점이 연합운동에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교계가 연합과 일치를 이룰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석 목사(기독교연합회.총무)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주교의 교황식은 아니더라도 춘천에 상징적인 영적 어른이 세워지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 교회만 잘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소위 각개전투는 어렵습니다. 힘을 모아야합니다.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 연합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약합니다. 아울러 수차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중앙감리교회 옛터를 유적지화하여야겠습니다. 교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면 충분히 후대에 문화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담은 사회문제, 교육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하는데, 예컨대 교육당국자들이 신설하려는 학교인권조례에도 그 폐해를 널리 알려 막아야겠습니다.

조영춘 목사(성시본부. 부본부장)



오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기독교계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과거에 성시본부 사무총장을 하면서 혁신도시문제 등 춘천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춘천에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직능별 단체가 540개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연합회의 존재감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사회적 책임, 지역적 책임을 인식하고 춘천의 현안문제를 기독교연합회가 돕자 모두가 크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대 사회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지도자들을 배출해야겠습니다. 학교인권조례의 경우 춘천의 한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동참하였는데, 연합운동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만이라도 전적으로 협력하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의 현안가운데 할랄식품 문제도 있습니다. 할랄식품을 통해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교우들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할랄식품을 통해 무슬림들이 일 만 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할랄식품이 우려만큼 영향을 발휘하면 큰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병철 목사(성시본부. 사무총장)



2년 정도 사무총장으로 사역해보니 전임자 되시는 정재호 목사와 임원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가를 알 것 같습니다. 개별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대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합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연합을 하면서도 각각의 지역교회들과 기독교사역단체들이 사역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하고, 자신의 사역에 충실할 때 연합운동이 더욱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차덕수 목사(기독교연합회. 회장)



새해의 중요과제중 하나가 시목협의회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교회는 시에게, 시는 교회에 요청하고 협력할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효문화실천운동]에도 기독교연합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4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지도자 자격증이 나오게 되고, 자격을 갖추어 학교와 군, 관, 교회에 들어가 성경의 효사상을 널리 알리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최영조 목사(성시매거진 편집장. 사회)



춘천 교계의 중진이시고, 제자훈련사역과 코칭사역에 조예가 깊으신 신재원 목사께서 함께 참여해주셨는데요, 연합사역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원 목사((CAL-NET자문)



우리가 함께 연합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장선에서 지금이야말로 자기반성과 평가의 시간이 매우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3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소강석 목사의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더 깊은 영감을 얻었는데요, 은사네트워킹이 꼭 필요합니다. 춘천의 교회 안에 인적 자원이 충분합니다. 그들을 참여시키면 됩니다. 기독교연합사역내에 [이슈대응팀]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동성애문제, 할랄식품, 학교인권조례등 자기 관심분야에 대응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화를 시켜야합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대응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네마다의 이슈에 대하여 동네 교회가 하나가 되어 대응팀을 만들어 대처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사례를 보면 인근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올 뻔 했습니다.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니라 분지로 형성된 춘천은 열병합발전

소가 절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함께 깨어서 지역과 동네현안에 대해서 함께 대처할 때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복음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션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팀을 만들어야합니다. 주님은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자기 문제에 빠져있고, 목회자들도 자기 교회내부의 문제로 연합운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이슈가 정확하고 옳으면 모든 교회가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지혜로워서 분명한 이슈와 목적에는 헌금을 합니다. 이제는 고루하고도 전통적인 생각만으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교회 본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그 지역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을 섬겨야합니다.

최영조 목사(성시매거진 편집장. 사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끝으로 김창환 목사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김창환 목사(성시본부 이사장)



연합운동은 누군가 한 사람, 한 기관의 지배구조로 나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조하셨듯이 연합의 정신, 겸손의 정신, 수평적 구조가 중요합니다. 또한 한 균 목사(현 평화동산교회)가 연합회장을 하실 때로 기억합니다만 1년에 1,2번씩 춘천 지역의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교제하니 이것이 연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행은 사람을 친밀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취재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예향

김진홍 목사(두레마을)의 칼럼 중 이런 내용이 나온다.

초대교회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인정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요, 지식인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천막 만드는 기술자(Tent Maker)였다. 사도 바울이 특별하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어도 한 가지 기술은 반드시 몸에 익혀서 어디에서 어떤 처지에 부딪히던 그 기술로 자신의 생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인일기(一人一技) 교육이 생활화 된 것이다. 그렇게 된 연유인즉 그들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어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리어 오면서 나라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기약할 수 없었기에 어떤 불운을 당하고 어느 곳으로 쫓겨나든지 자신이 스스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몸에 익힌 것이다. 그렇다. 우리도 한 사람이 한 가지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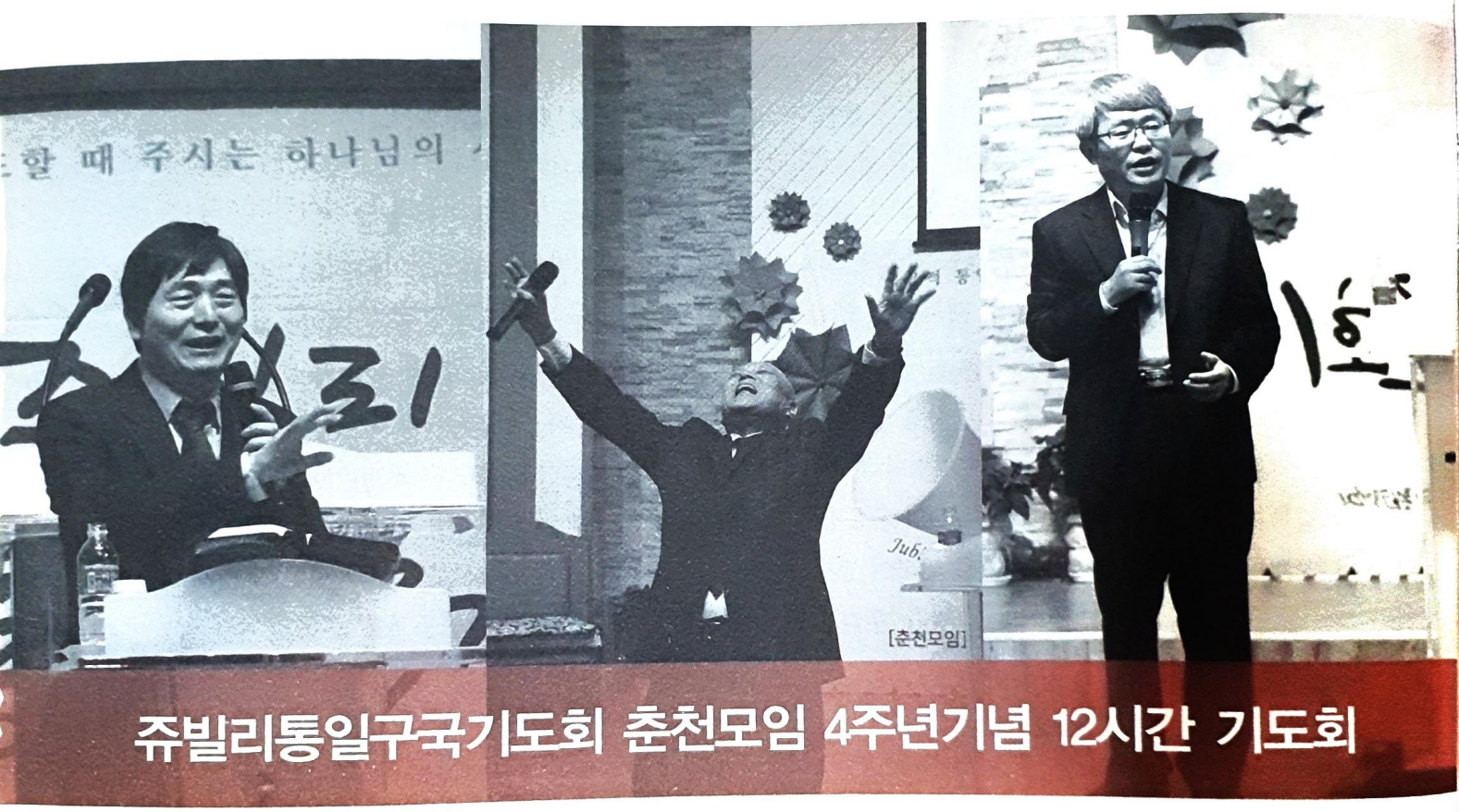
취재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만평



2015년에 지은 죄를 송구영신예배때
눈물로써 자백하고 회개하였으니
제발 2016년에는 내가 믿는 편한 방식대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지 말자
이 어지러운 세상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길 간절(간이 절이도록)히 기도하자!

그림, 글 / 이관형 작가 artpam@hanmail.net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4주년기념 12시간 기도회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4주년기념 12시간 기도회가 지난 12월 14일(월) 오전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 있었다. 금번 기도회에서는 한반도에 주께서 행하실을 기대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로 12시간 동안 이어졌다.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다른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금번 기도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 진리를 경험한 한 사람,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회장이었던 김경태목사는 부산 땅의 도시 부흥을 꿈꾸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금식하며 무릎으로 승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간증이 있었는데, 복음의 열정이 전해지는 시간이었다. 김경태목사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느헤미야 8,9장의 수문앞 광장에서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벌어졌다.** 개혁이 일어나,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장들이 회복되어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어찌되었는가? 바벨론 포로 70년,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계속 속국이었다. 부흥 일어나면 독립을 해야 하지 않은가? 다른 나라에 종 거는 못할지언정, 여전히 속국으로 고통당했다. 그러나 반게멜이란 신학자는 구약시대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은 구약시대 마지막 대부흥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400년

간을 감당해낼 부흥이었다. 그 부흥은 앞으로 예수님 오시게 하는 유일한 부흥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역사가 있다. 1903년도 원산대부흥이 있은 후, 그 영향으로 1907년 평양대부흥이 있었고, 1909년에 100만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구한말 어두운 시대에 10년간 3번이나 파장을 주신 것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부흥이 있어야 하는데, 1907년 평양대부흥 3년 후에 일제식민치하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고, 1938년 9월 9일에는 한국교회 장자교단 장로교단 신사참배 결의가 있었고, 해방이후 전쟁이 일어나 분단되었고, 지금까지 70년이 되었다. 그러나 어떠한가? 일제 때 주기철목사님외 50명의 목사님이 순교했다. 한국교회 자존심을 지켜낸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때에도 손양원 목사님외 여러 목사님들이 순교했다. 한국교회 부흥의 영성을 이어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흥의 영성을 이어갔던 북한의 성도들 1/3이 남한으로 와서 부흥을 감당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북한에 빚을 졌다.

부흥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도시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다. 부흥을 위해 기도로 춘천을 달달 볶으라."고 선포하셨다.

● 순교자의 피가 있는 철원제일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욱목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행 7:56-57)라는 말씀을 통해 매주 목요일 갖고 있는 복음통일 북한선교를 위해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소개하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교회내에 분열의 영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교권 때문에 수백 개의 교단이 있고 교회마다 자신이 최고라는 교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나' 만이라는 교만이 있다. 하나님 앞에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열의 영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통일기도모임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일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단순히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통일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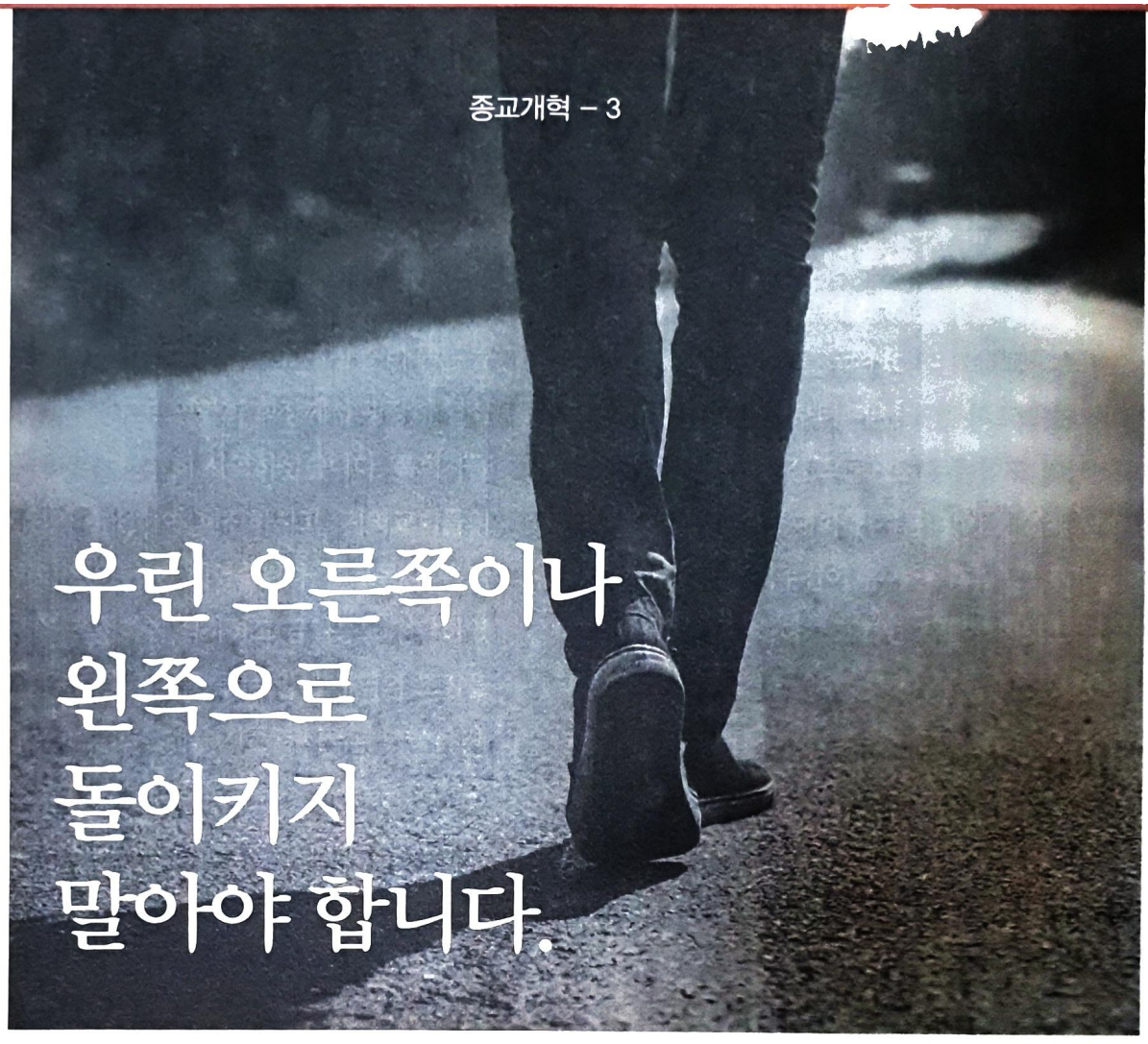
또 "철원제일감리교회는 강종근목사의 순교의 피가 있는 교회이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강목사님은 신앙정절과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며 심한 고문으로 인해 결국 1942년 6월 38세 나이로 소천하셨다."며, 철원제일감리교회를 찾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 **"순교할 수 있는가?"**라고, "순교하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고, 타협을 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적색의 순교는 피를 흘려 당하는 순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교이다. 그러나 지금은 목숨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순교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자. 순교자의 정신으로 적색의 순교를 못하면 백색의 순교를 하자. 통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선한사업을 위해 땀과 눈물로 충성하자."고 선포하셨다.

● 춘천에서 시작된 일본과 한국의 교회연합이 통

일의 문을 열게 되었음을 간증하며, 조선학교와의 관계를 전해주셨다. 일본인으로서 조선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된 계기를 전해주신 타키모토 준목사(일본 신시로교회)는 **"여호수아 세대의 예배를 드리라"(수1:1-5)**라는 제목으로, **"히브리민족은 430년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까지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고 마침내 탈출시켰다. 그러나 40년에 걸쳐 광야를 헤맨 후 가나안이 보이는 산에서 모세는 죽었다. 어떤 면에서 모세는 억울했다라고 생각든다. 그러나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모세가 죽더라도 새로운 세대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 갔다. 여호수아 세대가 되니 여러 가지 일들이 바뀌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광야를 함께 갔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다. 수5:13~15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는데 여호수아 앞에 무장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있는 것을 보고 누구의 편인지 묻는다. 세대가 달라지니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적입니까 혼란될 정도로 분별이 힘들었다. 여호수아 세대는 실제로 전쟁하는 세대이기에 군대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인식했을 때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여리고성을 취하는 전쟁은 아주 특별했다. 7일에 걸쳐 점령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아야 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행진하였다. **여호수아 세대가 되니 예배의 형태가 달라진 것이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과 섬겼던 그들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실제적인 예배와 전쟁이 하나가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새로운 세대의 예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쟁 그 자체가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이제는 마지막이다! 라는 위기에 봉착했었다. 그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말씀했다. 전쟁의 최전선에서 성가대를 조직하여 기쁨의 찬양을 했다. 그 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들을 흩으셨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르쳐주신 싸우는 방법이었다. **진정한 예배는 적의 면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저희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셨을 때 마을로 나가 악령에 대적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처음에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점점 깨닫게 되었다. 모든 문제들 가운데 원인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될 때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남북분열도 어떤 면에서도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 우리는 이 영역에 대해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도 현장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춘천은 북한과 가까운 곳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무장을 하고 서계신 분이시다.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남북분열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나가 중보하고 예배하는 것에 앞으로 회복이 달려있다고 믿는다. 이 춘천에서의 싸움이 반드시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글 /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가톨릭은 중재와 매개의 체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 주는 것, 그리고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사제와 미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는 사제가 집례 하는 미사와 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보십시오.

● 교황 숭배 / 교황 무오설

"교황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신앙과 도덕의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 그는 절대무오하다. … 교황의 절대무오성(infallible)에 대한 교리는 바티칸공의회에서 성교회에 의해 정의되었으므로, 감히 교황의 절대무오성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단이다."(교황 피우스 10세, 요령집, 25쪽)

"… 로마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의 최고 목자와 스승으로서 형제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정의하여 선포할 때에, 교황은 직무상의 무류성을 향유한다. … 이러한 무류성은 하느님 계시 유산의 범위와 동등하게 광범위하게 미친다. (교회헌장 25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편 p.344-345 #891]

"사목자들이 행사하는 교도권의 무류성은, 윤리를 포함해서 구원을 위한 신앙 진리들을 보존하고 설명하며 지켜 나가기에 필요한 교리 조항에까지 미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편 p.712 #2051]

"… 사실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전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직책상으로 완전한 최상 전권을 가지며 언제나 자유로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교회헌장 22항, 주교교령 2;9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편 p.342 #882]

"하느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책무는 오직 교회의 교도권, 즉 교황과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에게만 주어졌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편 p.46 #100]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로서 우리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맡겨 사목하게 하셨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위임하여 전파하고 다스리게 하신 (…)교회이다.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단체로서 이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톨릭교회 안에 존재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편 p.316 #816]

● 사제와 평신도의 분리 / 성직계급체제

"하느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책무는 오직 교회의 교도권, 즉 교황과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에게만 주어졌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편 p.46 #100]

"사목자들이 행사하는 교도권의 무류성은, 윤리를 포함해서, 구원을 위한 신앙 진리들을 보존하고 설명하며 지켜 나가기에 필요한 교리 조항에까지 미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편 p.712 #2051]

"사제(Priest)를 멸시하는 자는, 곧 하느님을 멸시하는 자며, 사제에게 복종하는 자는, 곧 하느님께 복종하는 자다. 사제들은 하느님처럼 죄를 사면하며, 사제가 제단에서 그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스스로와 회중에 의해 하나님처럼 숭배 받는다. … 그들의 위대한 직분과 비교될만한 것이 무엇이랴. 이와 같이 하느님의 불멸하시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 가운데 행사하는 그들을 우리가 천사들로,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한 표현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종교(경건이나 신앙이라는 뜻을 본래 담고 있던

것)개혁은 중세 가톨릭의 교황무오와 사제주의에 저항하여 만인제사장(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는 말)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오른 쪽이나 왼쪽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정일웅 박사(총신대 전 총장)는 "한국교회에는 언제인가부터 중세 로마가톨릭시대의 사제주의가 되살아나 목사들이 당회장권, 강단권, 설교권, 목양권, 축도권, 안수권 등의 이름으로 제사장적 기능을 특수화하고 교권을 강화시켜 교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혜암신학연구소 주최 제4회 공개강연회)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국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성직계급인 '제사장주의'를 극복하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신부(Father)란 호칭을 금하고 있습니다(마 23:9). 지도자(master) 개념으로서 목사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도자(master)란 호칭도 금하고 있습니다(마 23:10).

전 신자 제사장 교리에 담긴 참 뜻은 첫째, 이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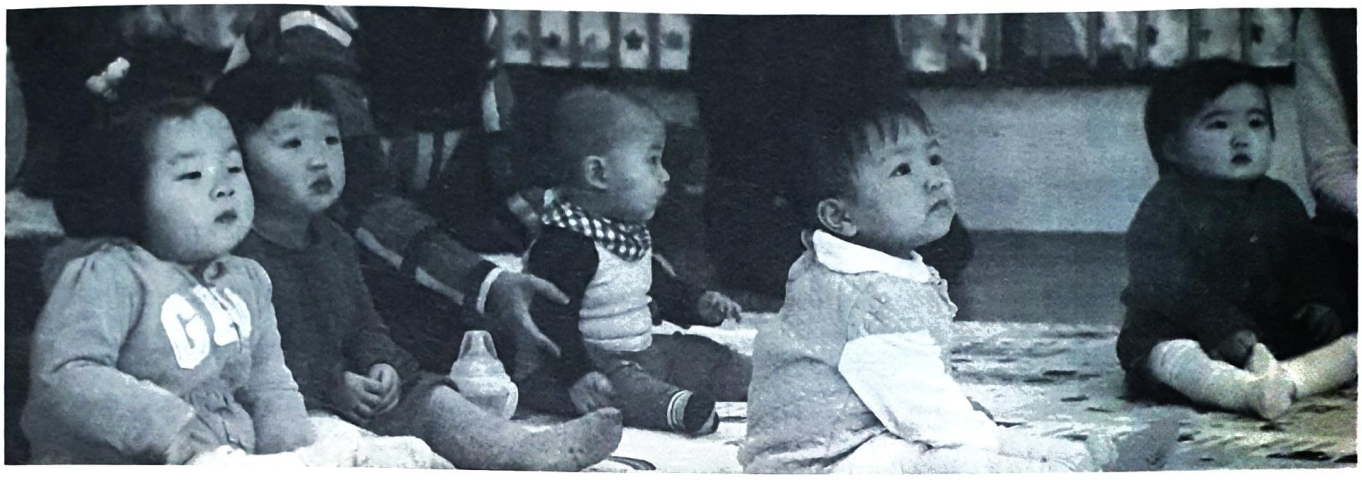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롬 5:1-5)

둘째는 이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기들 중의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으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눅 22:24-27)

개혁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롬 10:8) 그러나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글 / 이영규 기자 (abaa-father@hanamil.net)



온누리교회 영 · 유아부

글 / 김한나 (온누리교회 영 · 유아부 간사)

온누리교회는 '만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자' 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예배와 신앙교육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셨던 것처럼 온누리교회는 영 · 유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영 · 유아부는 0-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배와 신앙교육을 하는 주일학교인 동시에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교육부서입니다.

2015년 2월 1일. 온누리교회 영 · 유아부는 11시 부모님 예배에 30분 앞선 10시 30분에 6명의 교사, 그리고 6명의 아이들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으로 양육하길 원하는 부모님들의 소망이 첫 예배부터 어린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둘째 아이를 출산해 산후조리 중인 엄마를 대신해 예배에 나온 아빠와 아이도 있었습니다.



2015년 한해 영 · 유아부 예배를 통해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감동한 것은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찬양케 하시며 그 찬미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영 · 유아부 예배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예배 순서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래서 매 월 마지막 주 대표기도는 아이들 부모님 중 한 분





이 하시고 헌금위원은 아장아장 걸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합니다. 또한 찬양예배(악기, 노래, 율동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 암송예배(매 월 배우는 암송말씀으로 분기별 암송예배), 애찬예배(식탁에서부터 오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사랑과 감사, 교제의 예배)등 다양한 예배 형태를 통해 아이들은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며 부모님들은 영 · 유아 예배를 이해하고 아이들이 주일성수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매월 안내문을 통해서 영 · 유아부 소식과 추천도서를 소개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암송할 수 있도록 당월 암송말씀과 달력 스티커표, 율동을 활용한 암송동영상을 제작하여 부모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와 엄마' 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기 원하는 영 · 유아부 엄마들과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임(엄마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모임' 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면서 아이들이 믿음의 부모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주는 모임입니다.

영 · 유아부는 교회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기는 놀랍게도 마음이 발달하는 3세 미만 부터라고 합니다. 때문에 마음이 발달하는 시기인 영 · 유아 때부터 반드시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아이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할 수도 있고 불신앙인으로 자라게 할 수도 있는, 이 모두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온누리교회 영 · 유아부는 아이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삶의 이유와 방향이 분명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영 · 유아부 예배에 함께 합니다. 아빠들도 점점 아이들의 예배와 신앙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다. '아주 작은 예수님의 제자' 인 우리 아이들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할 그 날을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동성애’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악법, “국가인권 위원회법” 개정해야 한다!

동성애자 세계의 모든 것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합법화 되면
그것은 국민적 재앙입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의 고유 전통문화를 짓밟고 있음은 물론,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병영생활의 무질서 초래, 차세대 교육현장인 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동성애"를 가르치게 만드는 학생(학교)인권조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제정, 시행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심히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계국회 평신도 5단체(국가조찬기도회, 국회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일기독의원연맹,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협의회에서는 지난 해 12월1일 대한민국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교계지도자 초청 현안보고회"를 갖고, 동성애 관련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호소문 발표, 그리고 입법개정 청원 서명식을 가지고, 전국 광역 시도와 시, 군, 구 교회를 통하여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 날 광역 시.도 대표회장들이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관련법 개정호소문"을 여기에 소개하며, 관련법 조항의 삭제 를 위한 개정서명운동에 교회 성도는 물론, 전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관련법 개정 호소문]

o 한국교회와 대다수 국민들은 건전한 정신문화를 확립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하여 올바른 성문화를 저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법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원회는 그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도 받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 사유에 문제의 '성적지향(이성애, 양성애, 동성애)'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성문화하였다.

o 동성애자의 정당한 인권은 보호되어야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자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그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조한 나머지 그 인권보호 차원을 훨씬 뛰어 넘어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국가예산으로 동성애를 옹호,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을 뿐만 아니, 동시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한 국가공권력으로 제재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큰 노란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개정의 당위성]

o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과 법률위반이다. 법률상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성별, 사회적 신분과 같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몰가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데, 동성애는 선악과 호불호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차별금지 사유의 몰가치성에 반한다.

o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으로 구태여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성적지향' 문구 때문에 현재 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동성애자를 역차별 하여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 .적용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동성결혼의 근거법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규정은 남녀의 결합만을 유효한 결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물론 민법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o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실정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보편적인 윤리규정에도 위배된다. 일정한 때와 장소를 지배하는 실정법과 성문법의 배후에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적 윤리와 원리가 있다. 국민의 자발적인 준법 동기는 법이 이러한 보편적 윤리적 도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법의 강제성에 있지 않다. 남녀는 각 성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남녀의 성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연의 순리이다. 이러한 순리를 거스르고 비윤리적이며 국민의 정서에도 반하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못박아 놓은 "성적지향" 문구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개정의 긴급성]

o 차별금지법안이나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군인권보호법안, 교육인권법안, 시민인권헌장, 동성애 퀴어문화축제, 국방부훈령 등에는 인권법의 모법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인용하고, 그 내용 중 '성적지향(동성애)' 부분을 포함시키면서 우리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청소년들에게 성정체성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동성애를 옹호, 지원하는 친동성애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o 군에서는 동성애자를 다른 병사보다 우대하는 역차별 조치가 이루어져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전투력이 약화되고 있다. 심지어 중, 고교 교과서에서까지 어린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교육하고 있으며, 남성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율은 일반인에 비하여 750배 높다는 것이 서울대 연구보고서 결과이다. 동성애, 동성혼은 개인의 불행과 가정과 사회의 붕괴를 가져오며,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시책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발전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어온 한국 교회는, 이러한 비정상적 사회현상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와 같이 호소하는 바이다.

첫째, 전체 국민의 대변자이며, 법 개정 권한이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과 다음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병폐를 가져오고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동성애 지원 정책을 전환하여, 건전한 성문화 보급과 에이즈 예방과 치유에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는 총선후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한국 교회에 호소한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청원을 위한 지역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한국 교회와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다섯째,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비난과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고 배려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5년 12월 1일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주최
한국교계 지도자 초청 현안보고회 참석자 일동

"건전한 성문화를 견지하므로 건강하고 밝은 나라가 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한국, 선교한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진실중의 하나는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김재동목사 (하늘교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진실중의 하나는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스라엘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해방 후 1948년 당시 국민소득은 35달러로 세계 최빈국인 140개국 중 인도 바로 위인 139번째였다. 비누조차도 만들 수 없었고, 문맹률이 90~95%로 자기 이름 석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1948년 10월 뉴욕타임즈에 "한국이 완전붕괴 직전이다"라는 미국관리의 글이 올라올 정도로 비참한 나라였다. 더군다나 6.25전쟁이 일어났고 다 폐허가 되었다.

이런 나라가 불과 67년이 지난 지금 선진국이 되었다. 전 세계 떠다니는 선박의 43%가 한국산이다. 전 세계 공항 수천 개 중 인천 공항은 13년 연속 세계1위이다. 작년 한해 자동차 1800만대를 230개 나라에 수출했다. 스마트폰은 전 세계 절반이 메이드 인 코리아이다. 67년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13위 경제대국, 외환보유국 7번째, 세계가 무시하지 못하는 무역대국이 되었다. 1960년부터 1995년까지 35년 동안 연평균 7.1%인 경이적 성장률을 지속한 나라, 세계 식민지에서 해방된 140개국 중 유일하게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나라, 이 작은 땅에 6만개의 교회로 가득한 나라,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반만년동안 백성이 주권을 가진 적이 없었고 왕이 권한을 휘두르는 나라였다. 구한말 당시도 신분제도로 인권 평등 자유가 없는 나라였다. 10% 미만의 양반과 나머지는 농민 아니면 천민이었다. 40~50%의 농민은 소작농으로 농사지어 50%를 양반에게 주는 계층으로 출세도 할 수 없었다. 고종 때 노비는 100만명이었다. 노비는 상속문서에도 기록되는 사람이 아닌 물건과 별반 다름이 없었고 이름도 없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도 있었다. 구한말까지 칠천반이란 제도로 가장 하층에 해당하는 포졸 기생 무당 가파치 백정(인구조사에서 제외)등, 일곱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또 불쌍한 사람은 여성들이었다. 7세가 되면 밖을 못나갔다. 17세가 되어 시집을 가면 남편 집에서 외출도 못했고 이름이 없었다.

자유가 없으면 절대로 발전이 없다.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한다. 자유는 소중한 것이다. 자유와 인권이 없는 이 나라에 구한말부터 4,2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다. 1885년에 언더우드와 함께 온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재학당을 세워 조선의 청소년들에게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가르쳤고 인권이 유린되는 신분제도를 깨기 위해 실제적인 사역을 한 것이다. 그 청소년들 중 한 사람이 이승만이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50년이 걸렸다. 이승만은 고종을 향해 전제 독재 정치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라도 만들자라고 부르짖다가 1899년에 한성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리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처음 드린 기도가 "나의 영혼, 나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50년 후, 반만년의 종의 멍에를 끊어 버리는 대 사건인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양반들만이 아닌, 양반도 한표 농민도 한표, 여자도 한표, 노비 백정도 한표 였다. 성별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투표를 함으로 신분제도 타파와 모든 인간의 자유 인권회복으로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한 날이다. 이 나라를 향한 특별한 은혜로 모든 국민들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선거로 국회의원 198명을 뽑고 1948년 5월 30일 제헌국회를 이승만 연장자의 인도와 이윤영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한 것이다. 기도내용은 통일한국의 기도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남북통일 민생복락 세계평화의 기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방향인 국가비전이었다.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세계 최고의 헌법이다. 국가의 위대한 청사진이었다. 자유총선거가 반만년 역사에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자유와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면, 제헌헌법은 소중한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두 가지 안전장치를 한 것이다. 하나는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자유가 중요해도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안전장치를 한 목적은 소중한 자유를 바탕으로 이대로만 나라를 경영하면 빠른 시간 내에 선진한국이 되어, 전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국가의 비전이다. **이런 바탕에서 빠른 경제성장과 영적축복까지 일어난 것이다. 그 뿌리가 자유총선거와 제헌헌법이다.** 더 중요한 것은 4조 헌법 중 불개정 조항에 영토조항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너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북한과 전 세계에 확산시키라는 것이다. 이 부름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위대하고 자랑스런 시작이었다. 왕이 주인이었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은 우리 민족 역사상 그 의미가 깊다.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축이다. 이승만대통령의 유언기도가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갈5:1)였다. 북한 복음통일을 위한 길도 **"종의 멍에를 끊는 기도"**를 해야 한다.

춘천기독교 장로연합회장을 맡으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디모데전서 1 : 12)

춘천기독교 장로연합회 활동을 한지도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배 장로님들을 열심히 도와드리다 보니 연합회 총무와 부회장을 거쳐 수석 부회장으로 자리가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총회에서 장로연합회장으로 피선되었습니다. 춘천기독교 장로연합회는 초교파적으로 구성된 장로님들의 연합체로서 상호교제와 신앙적인 유익을 교류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춘천성시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춘천시가 도농통합 도시로서 면적이 넓어지고 교회수가 많아졌습니다. 아울러 장로님들 회원이 수백 명이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1년이라는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연합회는 매월 1회 기도회로 모이며 순방헌신 예배와 6.25 구국 기도회를 통하여 연합활동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장로회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도 가져봅니다.

성시화의 도시 춘천! 공직자와 시민들이 거룩한 도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글 / 춘천기독교 장로연합회 29대 회장 강철주장로 (창대감리교회)

겨울철 가려움증

글 / 고석원 (고석원건강의학과)

"가려움증이 겨울철에 부쩍 늘어나는 이유는 환경이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N포세대'란 말을 아십니까? N포세대란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 이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 여기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세대'까지 등장했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 다른 것도 다 포기해야 할 상황이란 뜻에서 스스로를 'N포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20년 전 일본처럼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생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는 심야 영업이나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물론 직장인들도 부업을 해야 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손주를 돌보느라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힘들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으니 다른 시대보다 유난히 많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전보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 가려움증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일중변동(circadian rhythm)을 보이며 규칙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취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잠을 늦게 자거나 잠이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분비가 안 되서 피지분비에 문제가 생기고 부족한 피지로 인해 피부는 건조해 집니다. 따라서 피지가 없이 약해진 피부는 조그마한 자극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기존의 피부병들

은 악화됩니다. 새로 생긴 피부염이나 악화된 피부병들은 주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데 원인은 대부분 같습니다. 바로 수면장애와 피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음주 또한 가려움증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가려움증이 겨울철에 부쩍 늘어나는 이유는 환경이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고 공기 중 습도도 낮습니다. 그러므로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들은 가장 먼저 피부가 건조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토피나 건선 같은 기존의 피부염의 악화, 동계소양증, 긁어서 생기는 만성단순태선 같은 이차성 피부염들은 건조한 피부가 질병의 특징인데, 서로 다른 질환이지만 보습만 잘 해줘도 좋아지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가려움증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보통은 보습을 한다는 것을 보습제를 바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습제를 지속적으로 바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피지분비조절호르몬은 취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충분하고 이른 수면은 피지분비를 원활하게 해줘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대부분의 가려움증을 자연적으로 치료해 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기장판 사용을 피하는 것 입니다. 전기장판은 직접적인 열로 피부를 건조하게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면을 방해해서 가려움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노인은 정기장판 사용만 금해도 가려움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때 수건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때라는 것은 공기 중의 먼지와 피부의 피지가 만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지분비가 안 되는 건조한 사람들은 때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때를 밀 때 하얗게 밀려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때가 아니라 정상 피부입니다. 따라서 때 수건은 오히려 피부를 벗겨내는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 피부병을 더 악화시킵니다.

저성장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들로 병들고 힘들어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들 중에는 우리가 관리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관리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만이라도 고친다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 아뢸 수 있는 기도란 강력한 무기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으로 인해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겨울철 길거리표 간식

빨간붕어, 파란붕어, 노란붕어 세 마리가 연못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과학자가 연못의 오염정도를 알아보려고 세 마리의 붕어를 불러들였다. 먼저 빨간 붕어의 피를 빼보니 빨간색 피가~파란붕어의 피를 빼니 파란 피가 나왔다. 연못이 오염되지 않은 것 같아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노란붕어의 피를 뽑아보니 이번엔 검은색 피가 나왔다. 깜짝 놀라서 노란 붕어에게 물었다. "너는 어떻게 살았기에 검은색 피가 나오는고?" 그러자 노란붕어가 말했다. "지는 붕어빵인데유."

겨울철 길거리 대표음식 어벤져스 군단은 군고구마, 호떡, 오뎅 그리고 떡볶이가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남녀노소 전 연령층 고객 입맛을 사로잡는, 겨울철 제일 먹고 싶은 길거리 음식으로 바로 붕어빵이라고 한다. 겨울철 길거리 포장마차의 대표 주자인 붕어빵을 먹을 때는 꼭 있어야 할 또 하나의 파트너가 있으니 바로 오뎅(어묵)국물이다. 이 오뎅 국물은 반갑게도 공짜인데다 무한리필로 특히 겨울바람 쌩쌩 불 때 붕어빵과 같이 먹으면 그 맛이 천국이다. (오뎅 국물을 사먹을 때 붕어빵을 무한리필로 먹으면 어떨까?)

하지만 대부분 길거리표 메뉴는 싸구려 취급을 받는다. 그 이유는 위생상 지저분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떡볶이, 오뎅, 붕어빵, 호떡, 핫도그 등의 주재료가 모두 밀가루라 그럴 것이다. 하지만 어찌하랴? 모두 중독성 강한 메뉴라 먹기 불편해도 틈틈이 먹게 되는 간식이고 어떤 이에게는 간식거리가 아닌 한 끼 식사 대용일 것이다. 포장마차 음식은 거의 다 군더더기 없는 통일된 단순한 맛이다. 그러기 때문에 판매 전략이 다른 곳과 달라야 한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붕어빵, 떡볶이도 웰빙이란 이름아래 여러 체인점에 소속되다보니 아이돌 스타 마냥 몸값도 날로 치솟고 있고 붕어빵인 경우 안의 내용물도 팥 이외에 슈크림과 초코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 앞으론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한식인 김치나 잡채가 들어가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우리 동네 떡볶이 음식점은 배달까지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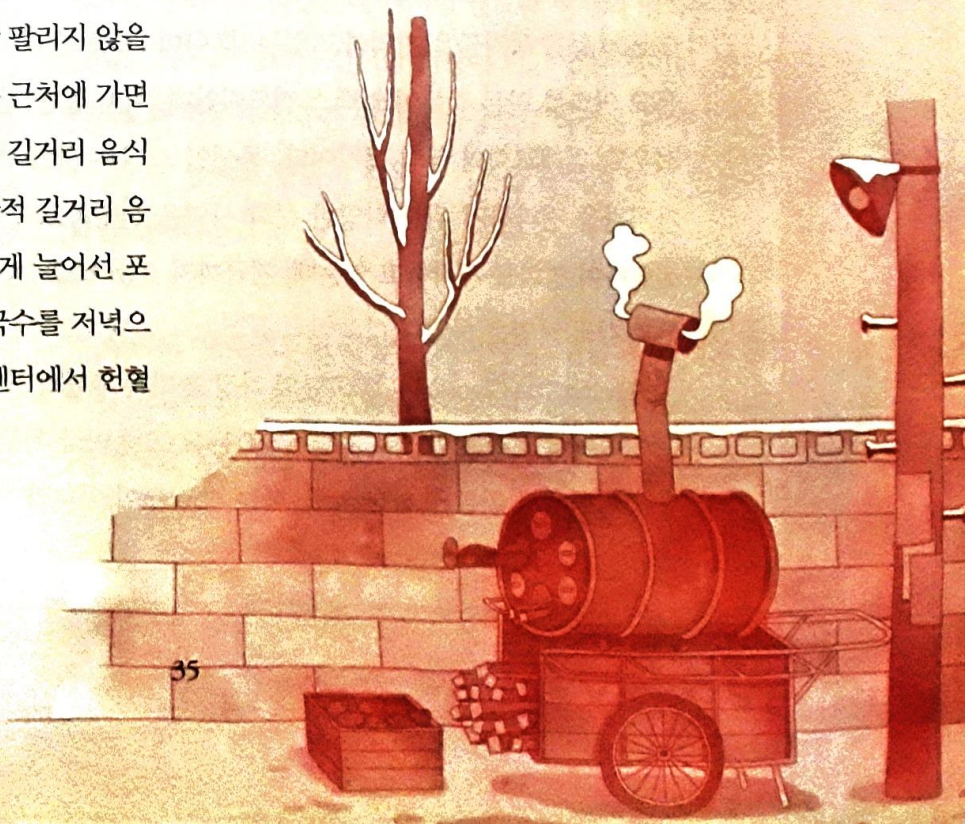




이렇듯 젊은 고객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으로 포장마차 풍속도에도 많은 변화가 불어왔다. 춘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공략하려고 신규브랜드 입점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하지만 화려하고 깔끔하게 인테리어 된 곳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멋 집' 은 많이 늘었지만 입맛 까다로운 아니 촌스러운 춘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맛 집' 은 거의 없다. 춘천 사람들이 바라는 맛 집은 멋있는 집보단 우선 맛 좋은 맛 집을 선호한다. 우선 떡볶이 전문점만 보더라도 닭갈비 덕분에 쫀득한 쌀떡에 익숙한 우리가 먹기엔 다소 뻑뻑한 밀가루 떡이고 음식량 또한 가격에 비해 얄미울 정도로 야박하다. 그리고 치즈나 우엉, 깻잎 같은 걸 넣은 독특한 부산식 오뎅 등의 퓨전메뉴도 사케(일본 청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이런 퓨전 음식을 길거리 포차에서 기대하지도 않고 판다고 해도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업무관계로 서울 동대문 근처에 가면 점심으로 햄 토스트와 따뜻한 베지밀을 길거리 음식의 백화점격인 건국대 앞에선 여러 다국적 길거리 음식을 간식으로 동서울버스터미널 앞 길게 늘어선 포차에선 후루룩후루룩 요란스럽게 가락국수를 저녁으로 종종 먹는다. (참고: 터미널 앞 헌혈센터에서 헌혈하면 영화표를 줍니다.)

공지천 포장마차 촌이 올해 4월까지 모두 철거된다고 한다. 포장마차 이름이 '집합장소' 라 모임 장소가 헷갈렸던 그 곳에서 먹던 골뱅이무침과 국수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홍합을 후후 불며 까먹던 적도 있었고, 임산부의 입덧에 추운 날 신랑들이 애먹으며 많이 찾았다던 포차 닭발의 명가 '참새와 방앗간' 등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련한 추억의 한 켠을 차지하며 나이 듦에 마음이 슬프지만 그 마음 아시고 쓰다듬어주시며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살아간다.

글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워룸
WAR ROOM

글 / 김춘배기자 (beller@hanmail.net)

몇 년 전에 소개한 〈파이어프루프〉(Fireproof), 〈용기와 구원〉(Courageous), 〈믿음의 승부〉(Facing The Giants) 등을 독자들은 기억하고 있는지? 아마 그 중 한 두어 편은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 화제의 기독교 영화를 만든 감독이 알렉스 켄드릭인데,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미국 조지아 주 알바니에 있는 셔우드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동생인 스티븐 켄드릭과 함께 사랑과 희망에 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3년 셔우드픽쳐스를 설립하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Flywheel〉, 〈Facing The Giants〉, 〈Fireproof〉 세 편의 각본과 감독 작업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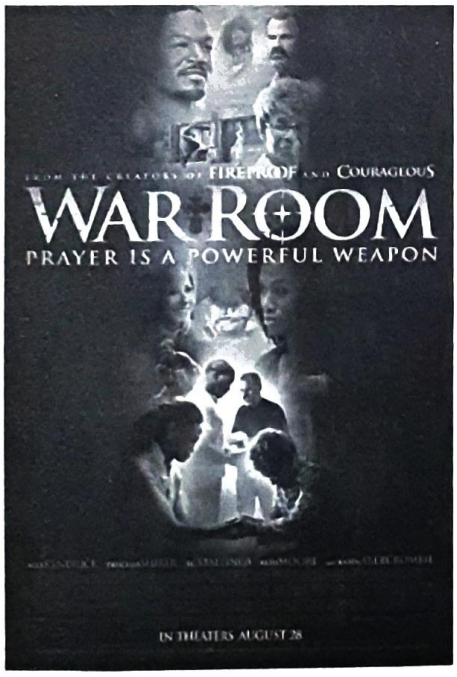
〈Facing The Giants〉는 '2007년의 가장 놀라운 흥행작'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기독교계와 일반 평단 양쪽에서 호평을 받았고, 〈Fireproof〉는 2008년 미국 최고의 기독교 영화로 선정되었다.

이 영화에서 워룸은 전쟁war을 하는 방room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골방을 일컫는다. 주로 흑인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영화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감동적으로 그려나가고 있다. 회사의 중역을 맡으면서 가정을 등한시한 가장과 남편과의 사랑이 식은 상태로 곧잘 다투는 아내, 그리고 줄넘기를 좋아하는 딸이 있는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 일을 하는 아내가 만난 고객이 영혼구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전쟁미망인이라는 암시를 주듯 영화 시작에 전쟁 장면이 펼쳐진다. 그녀가 상실감을 기도로 극복한 것을 바탕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서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은혜로운 이야기이다.

필자 또한 이 기회에 간증하건대 화실 생활 중 주로 오전에 통유리에 가득 들어오는 햇살이 성령의 부르심 같아 홀로 있을 때 자주 기도하곤 하는데 바로 화실이 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 '워룸' 이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유난히 깊은 공감으로 아멘 하면서 감상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때마침 간사님이 신기하게도 이 영화를 메시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작품을 준비하다가 이 영화로 긴급 교체한 사실도 살짝 알려드리는 바이다.

영화에 출연한 샤이러와 베스 무어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샤이너가 집필한 책 '퍼번트' (Fervent)는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켄드릭 형제는 영화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의 싸움을 벌일 것인가' (The Battle Plan for Prayer)라는 베스트셀러를 썼다. 영화 '워룸' 은 이들이 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았다고 한다.



영화 [워룸] 포스터

지난 9월 북미 영화 흥행 박스오피스에 1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캔드릭 형제의 영화는 은혜로운 화제로 기독교 영화의 신선한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탄탄한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좋은 연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끌어나가는 힘이 완성도를 높이고 영화적 감동의 기본을 놓치지 않고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다.

우리도 이제 기도의 골방 곧 저마다의 '워룸' 을 가지고 홀로 들어가 고요히 기도하면서 새롭게 주어진 시간을 맞이하고 마라나타의 미래를 꿈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예강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2492-4316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⑧ 교회음악 (찬양대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모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 피아노1층(후석로 150번길 17-1)

☎ 010-6375-8874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9-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3-5455 (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동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 변화를 이끌어 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일시 : 월~금 (주1회) 9:00-14:00 시간 변동 가능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 내용 : 식당보조 및 배식, 설거지,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 인원 : 00명 · 장소 : 일정 및 시간 협의 가능

☎ 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안한나, 이의경 사회복지사)

①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② 2016년 청소년 대상 겨울방학특강

· 주관 : 해피스쿨 (010-2248-6387)

· 장소 : 베드로선교센터 5층 중강의실

· 주제 : 근현대사 특강 · 일시 : 1/9, 16, 23, 30 (매주 토 4주간) 오전10~12시

· 주제 : 이슬람 특강 · 일시 : 2/13(토) 오전10~12시

· 주제 : 창조론(차성도) · 일시 : 2/27(토) 오전10~오후1시

※ 문의 : 전화: 033.256.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J. 시벨리우스 (JEAN SIBELIUS : 1865-1957)의 핀란디아(FINLANDIA 〉 OP. 26



2016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묵은 해와 함께 우리를 하나로 묶지 못하게 했었던 잡다한 일들은 훨훨 날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간절한 바람은 국민 정서에 반하여 사회,정치,경제,종교적인 분열을 일으키는 극단적인 주장보다는 대 민족화합을 지향하는 리더십들이 사회 구석 구석에서 작은 불씨처럼 일어났으면 합니다.

여전히 21세기를 시작하면서 대두되었던 다양한 국가와 종교와 경제적 블록들은 테러와 마약과 범죄들을 대항하여 평범한 소시민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서가 메마르고, 인간의 심성을 교화 시켜야 할 종교적인 신앙이 다른 이익의 집단과 야합할 때, 인간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유럽에서 일찌기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일어났던 인간의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은 나폴레옹이라는 일그러진 영웅에 의하여 짓밟혀졌고, 깊은 잠에서 깨어난 각 나라들은 자민족주의 운동으로 자신들의 역사,문화와 전통에서 노래와 춤을 찾아냅니다. 음악사적으로는 바로 19세기 후반에 국민음악파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러시아에서는 슬라브민족들의 영감으로, 북구유럽의 노르웨이와 핀란드, 동구 유럽의 체코와 헝가리에서도 퍼져 나갑니다. 바로 시벨리우스라는 거장은 북유럽 겨울왕국 핀란드에서 억압받던 러시아로부터 민족적인 저항 정신을 음악에 담아 민속 신화와 자연 등을 잊지 않고 표현해 냈습니다. 교향시 〈핀란디아〉는 1899년에 초판이 작곡되어 러시아의 검열을 피해 비밀스럽게 작곡되었던 마지막 일곱 번 째 작품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곡이지만 북 유럽의 차디찬 빙하처럼 묵직한 금관악기의 음률로부터 시작해서 목관과 현악기의 종교적이고도 인간적인 선률로 깊은 내면의 감추어졌던 민족혼을 일으킵니다. 이어지는 합창곡은 베토벤의 그것처럼 기쁨과 마음 속으로부터 승리를 외치는 위대한 찬가로 끝을 맺습니다.

시벨리우스에 의해 창작된 〈핀란디아 송가〉로 불리우는 이 음률은 전통 민속음악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멜로디에 가사만 바꾸어 〈내 영혼아, 잠잠하여라: BE STILL, MY SOUL〉라는 찬송가로 애창되고 있습니다.

북국 겨울나라의 혹한의 빙하를 뚫고 꿋꿋하게 세월을 이겨낸 핀란드의 민족음악의 거장 시벨리우스의 교향시는 유명한 70년대 반전운동을 지지했던 품격있는 가수조앤 바에즈의 목소리로도 유튜브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 한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시 가족과 봄내에 거하시는 모든 이들께 평안을…

만천리에서 다니가 보내드린 음악이야기였습니다. (VOL.24). 샬롬!

글 / 김금찬 선교사

강원성시화운동본부 "2015 정기총회" 열어





창립 2주년(2013. 5.20 창립)이 지나고 3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강원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12월 22일(화) 오전 11시 횡성감리교회에서 2015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년 임기 중 2년을 마친 대표회장 원종국 목사(춘천제일감리교회 담임)께서 사임하시고, 후임으로 상임회장 인 양명환 목사(횡성감리교회 담임)를 임기 3년의 새 대표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상임회장은 정수를 2명 늘려 목회자 상임회장에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인 김창환 목사와 동해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겸 본부장인 이홍재 목사를, 평신도 상임회장에는 동해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인 김준식 장로와 초대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영명 장로를, 그리고 임기 1년의 감사에는 횡성성시화운동본부 상임고문인 정계항 장로와 원주홀리클럽회장을 역임하시고 현 원주가나안농군학교 장로기도모임 회장인 김병기 장로를 선출했다.

2016 새해맞이 "평화통일 기도회" 개최





올 한 해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의 산파역할을 했던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통일 후 북한 성시화 진작을 위해 한국 교회와 세계 한인교회를 견인할 것인데, 2016 새해맞이 평화통일기도회를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 통일의 새 날을 열어 주소서!" 라는 주제로 2016년 1월 1일(금) 오전 7시30분 "임진각 평화누리"(경기, 파주)에서 유빈리 통일구국기도회, 파주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한 통일기도운동 단체들과 함께 개최하게 된다.

2015 춘천장로교총회

춘천장로교총회가 12월 2일(수) 오전 11시 성광장로교회(조용아목사)에서 있었다. 춘천장로교총회에서는 2016년 회장에 조용아목사(성광장로교회)가 선출되었다.

4/14 세미나 개최

12월 성탄절을 맞아 성탄파티진도법인 4/14 세미나가 주향교회에서 12월 2일(수) 오전10시에 있었다. 4/14 세미나는 4세부터 14세를 대상으로 성탄절에 파티를 연고 초청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주 되심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만화책을 이용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는 세미나이다.



구세군 춘천자선냄비 시종식

구세군 춘천자선냄비 시종식이 지난 12월 4일(금) 오후2시 춘천시청 정문에서 있었다. 강태식사관(북춘천영문)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최동용춘천시장의 축사와 김영일춘천시의장과 차덕수춘천기독교연합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정성욱사관(구세군 강원지역관)의 시종신언이 있은 후, 나래 어린이집 마칭밴드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2015년 구세군자선냄비 목표액은 70억이고 춘천지역목표액은 4천만원이라고 한다.

춘천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위한 송년의 밤 개최



춘천호스피스(박상운회장)는 12월17일(목)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춘천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위한 송년의 밤"행사를 소양제일교회(이수호대표목사) 선교관에서 가졌다. 이날 100여분의 자원 봉사자들이 참석하여 예배와 '웃음치료 시간'과 '음악회', 간증시간을 가지며 지난 일년동안 말기암 환우를 위해 수고하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지난10년과 15년동안 봉사하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패를 진달했다.

2015 춘천홀리클럽 정기총회



2015 춘천홀리클럽 정기총회가 12일(토) 오후4시 석사감리교회에서 있었다. 1부예배에는 임운시장로(수석부회장)의 사회와 김종인장로(부회장)의 대표기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김창환이사장의 "동역자"라는 제목의 말씀선포가 있었고, 남준섭장로(회계)의 헌금기도, 석광훈장로(서무국장)의 광고후 김창환이사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에서는 황병호장로님(회장)의 사회로 이영규장로(부회장)의 개회기도로 총회가 진행되었고, 민병업장로(부회장)의 인도로 "춘천성시화를 위한 홀리클럽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북한 동포의 해방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합심기도가 있은 후, 예찬과 친교로 진행되었다.

2015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총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총회가 지난 18일(금) 오전11시 온누리교회(김창환이사장)에서 있었다. 이날 개회예배에는 이병철목사(사무총장, 주향교회)의 사회, 신상균목사(이사, 열린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김창환목사(이사장, 온누리교회)의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선포와 원종국목사(고문, 제일감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드리고, 2부 정기총회에서는 치덕수목사(본부장, 춘천기독교연합회장, 강원침례교회)의 사회, 황병호장로(홀리클럽)의 대표기도로 감사, 사업보고, 회계보고로 진행이 되었고, 임원선출에서는 회계에 홍순신권사(평화동산교회)께서 선출되었으며, 201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2015 정기총회를 마무리 했다.

통일광장기도회



매월 넷째 주 월요일마다 석사교 하천무대에서 열리는 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목사)가 12월 28일(월) 저녁8시에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열렸다. 이 날은 박상칠목사(신성감리교회)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거룩한 대한민국과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할랄타운 반대집회 개최



나라사랑시민연대(정형만대표)는 12월 21일(월) 오후2시 도청앞 광장에서 강원도내 할랄타운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반대집회를 개최한 정형만대표는 "할랄타운 조성을 계획 홍보하는 강원도는 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할랄타운 조성 및 할랄 도축장을 춘천 평창 강릉 양양에 조성하여 수출의 동력을 만들고 이슬람의 관광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도청에, 이는 나라를 폭력과 테러의 위기에 빠트리게 하려는 위험세력을 끌어 들이려는 무모한 계획은 진행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반대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발표한 성명서는 도지사와 도청에 제출되었다.

신촌정보통신학교 성탄축제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에서는 12월 23일(수) 오후3시에 제5회 "성탄축제 LOVE TREE"가 소망선교회(윤선애집사)의 주최로 열렸다. 올해에는 서울오륜교회와 중앙감리교회의 섬김으로 진행되었는데, 1부예배에서는 오륜교회 유성욱목사의 말씀선포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다음세대를 위한 메시지를 김성은교수의 강연으로 있었고, 난타, 합창, 섹서폰, 특송, 국악실내악 연주등 다양한 공연과 애찬으로 진행하며, 소년원 학생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원했다.

춘천역 광장에서 열린 성탄절 작은 음악회



성탄절 작은 음악회가 춘천기독교연합회(차덕수회장)의 주관으로 12월 25일(금) 오후3시 춘천역 광장에서 열렸다. 매년 주향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오후3시에 한일 동시각 성탄찬양으로 춘천역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을 선포했는데, 올해에는 춘기연 주관으로 여러교회가 참여했다. 주향교회(이병철목사), 신성교회(박상칠목사), 샘발교회(차성회목사)가 준비한 찬양으로 올해 처음 춘천역광장에 세워진 성탄트리 앞에서 주 오심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이날 따뜻한 온차를 강원침례교회(차덕수목사)와 춘천그리스도의 교회(조영호목사)에서 준비하여 시민에게 전달하며 사랑을 전했다.

강원CBS 개국21주년기념

성지순례단모집

1팀 예수님의 발자취 성지순례

일 시	2016. 3.29~4.6 (8박 9일)
장 소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
모 집	2월 28일까지 (25명) 280만원(모든경비포함)
여행사	(주)매일관광 (대한항공)



2팀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일 시	2016. 3.28~4.6 (9박 10일)
장 소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모 집	2월 28일까지 (25명) 329만원(모든경비포함)
여행사	갈릴리여행사 (대한항공)



• 접수 및 문의 : 강원CBS선교국 033)255-2001
(핸드폰 010-5370-3630)

•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인원미달시 취소될 수 있음.

※ 특 전
- 여행경비 이외의 추가경비 없음
- 춘천,홍천,원주-공항간 버스제공
- 1등급현지가이드, CBS직원인솔
- 항공료카드결재 및 경비대출가능

강원CBS

재체 UN이 왜 이럴까요?

© 건사연

2015. 11. 05

UN은 '**한국자유권 보고서**'를
채택하여 발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몇몇 시민단체의 로비에 의해
채택된 것이었다.



© 건사연

'한국의 시민단체 대표단은
UN 위원들이 커피를 마시러 나올 때나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까지 쫓아가
로비 문서를 전달했다.'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 중

© 건사연

그들이 UN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내용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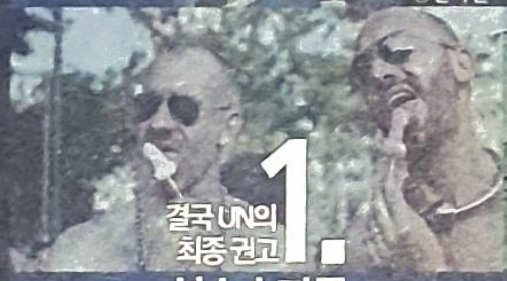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해산결정을 재심할 것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철회할 것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대체복무제)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할 것
(군대내 항문성교 보장)

© 건사연



1. 결국 UN의 최종 권고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라

"한국 정부는 공사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면서 인종, 성별지, 혈통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구성하고 금지하는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 건사연



2.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지 말라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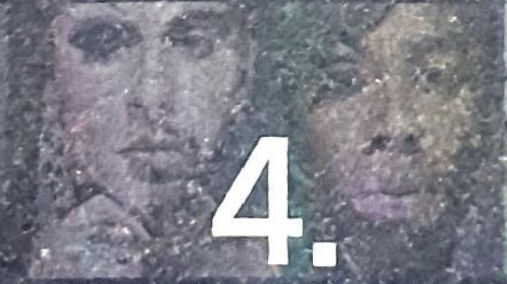
© 건사연



3. 동성애 치료(탈동성애)를 금지하라

"자신이라는 소수 (동성애) 전환치료 명시에 공공연히를 사용 자유하도록 다가야 하며

© 건사연



4. 동성애,양성애,트렌스젠더가 정상이라고 교육하라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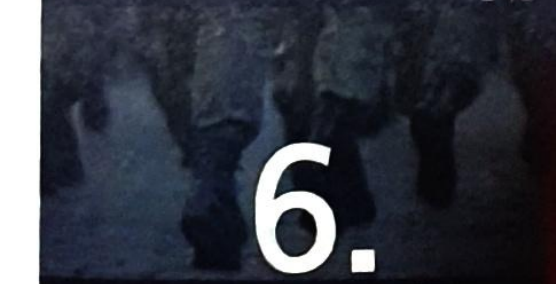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 건사연



5. 국가보안법 제 7조를 폐기하라

© 건사연



6.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즉각 석방 및 사면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이 모든 것을
1년 안에 이행하여
보고하라!"

UN은 대한민국의
정서 및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에 따라 권고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UN의 권고에 따를 필요가 없다.

방학을 즐겁고 보람차게!

2016년 청소년을 위한(학부형,관심자 환영)

겨울방학 특강

2016.1.9 - 2.27

베드로선교센터 5층 중강의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은 어떤 통일한국의 모습을 꿈꿔왔을까요?



주제 1 근현대사 특강

일시 : 1월 9일, 16일, 23일, 30일 매주 (토) 4주간 오전 10-12시



강사 : 김재동
- 나라사랑후원회 공동대표
- WEC 국제선교동원본부 이사
- 전 부산 고신대 겸임교수
- (한국 근현대사 강의)
- 현재 하늘교회(예장 통합)담임

조상균
- 침례신학대학교 및 동대학원졸업
- 현) 거성교회 부목사

변수연
- 터프츠대 아동학 석사
-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예방과학 및 실천학 석사
- 현) 올리원코리아교육지원센터 연구개발실장
- 현) Facing History and Ourselves 프로그램 평가 컨설턴트
- 현) 서울시이버대 군교육지원센터 강사

주제 2 이슬람 특강

일시 : 2월 13일 (토) 오전 10-12시

강사 : 조영춘
- 현) 춘천성시본부 부본부장
- 현) 본 국제신학교 교수
- 현) 예광교회 담임목사

주제 3 창조론 특강

일시 : 2월 27일 (토) 오전 10-1시

강사 : 차성도 교수
- 한국과학기술원 이학박사(물리학)
- 현) 강원대 물리학과 교수
- 현) 한국창조과학회 춘천지부장

주관 사회문화연구소, 해피스쿨 후원 사단법인 베드로선교문화센타 문의 010.3829.5115

발전기금

사암교회 주향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자연유치원 제자들교회 신성교회 남산감리교회 광염교회 온누리교회 거성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중앙성결교회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세희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진 김정혜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진구 김춘화 김춘희 김향란 김현정 김현철 김혜숙 김희경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박갑출 박금화 박노향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미연 신옥자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윤흥묵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윤숙 이은경 이은옥 이은준 이종상 이주영 이진주이태우 이형식 이혜숙 임덕수 임우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은희 장창순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미경 정성옥 정용현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명호 조소현 조수지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표복순 한명수 한정연 한희현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은주

춘천성시운동본부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교회

갈릴리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강원침례교회

단체 및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영광한의원 JDM 춘천YWCA 행복재가요양기관 춘천와이신협 매일관광 성시무용단 월드비전 건사연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2016학년도 전반기

한국복음주의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과 정	학과(학위)	수업년한	모집인원	지원자격
석사과정	목회신학 (M.Div.Equ.)	3년 (6학기)	00명	대학(4년)이나 4년제 신학교 졸업자 및 동등자격인정자
연구과정	목회연구 (M.A)	2년 (4학기)	00명	대학(4년)이나 4년제 신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자격인정자
신학원	신학과 평신도학과	4년 (8학기)	00명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자격인정자

전형일정

구 분	2016년 1학기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2015.12.14(월) – 2016.2.15(월)
전형일시	2016.2.19(금) 오전 11시
전형장소	본교 교수실
합격자발표	2016.2.23(화) 개별통지
개강일	2016.3.7(월)

우리학교의 장점

- 국내외 탁월한 교수진
  - 예장교단 목사안수(M.Div. 졸업자)
  - 선교사 후보생은 선교단체 파송
- 완벽한 교육시설과 도서관 이용
  - 호주 퍼스신학대학교 유학 특전

협력학교
한국제자훈련원(KDTI)
호주 퍼스신학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문의

24217 춘천시 동면 만천로 143번길 97
T. 033/242-2819 F. 243-6705
E-mail : jdmkdti@hanmail.net

한국복음주의신학교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한국 최고의 **제자훈련 기관**
38년 **제자사역**의 노하우

KDTI

JDM 예수제자온동



- **훈련기간** - 매년 3월 첫 주 개강 - 11월 마지막 주 종강
- **모집대상** - 평신도 선교사나 영적 지도자로 훈련받기를 원하는자
  청년사역이나 선교, 캠퍼스 사역을 원하는 자
  공동체 훈련에 관심 있는 자

** 자매학교 – 한국복음주의신학교, 호주 퍼스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문의처 : 춘천시 동면 만천로 143번길 97, T. 033/242-2819, jdmkdti@hanmail.net
홈페이지 www.kdti.org



